

CHAPTER 4. 정시모집 대비 전략 수립의 정석

4) 가장 중요한 과목, 국어

그동안 수험생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을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왔습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다 입시에서 수학의 영향력은 문·이과를 막론하고 굉장히 높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수학 못지않게 국어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라는 수능에 불어 닦친 변화가 국어의 영향력 강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요. 더불어 최근들어 국어 문제의 난도가 올라감에 따라 변별력이 높아지고 최상위권 학생도 고득점을 얻기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 결과 국어 고득점자는 입시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국어는 앞으로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국어 영역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학습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수능 국어, 대입에서 실질적 영향력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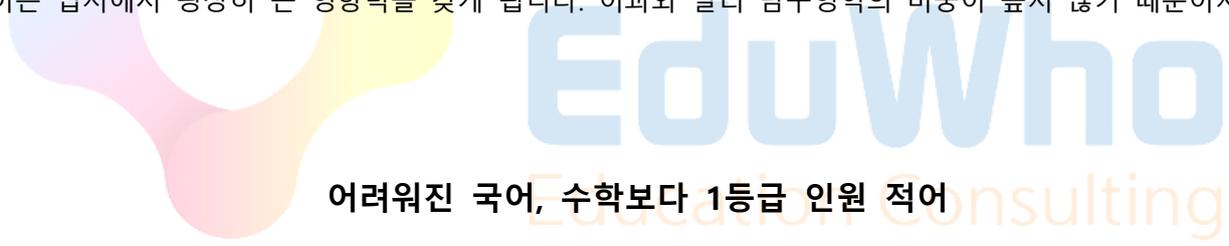
수능 국어는 앞으로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영어 절대평가'의 도입 때문이지요. 영어 원점수 90점만 넘기면 누구나 1등급을 받게 되면서 대학의 입시정책도 변화했습니다. 특히 수능 성적을 주요한 평가 요소로 삼는 정시의 변화가 크지요. 각 대학이 미리 발표한 2019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대학들이 수능 영어성적을 그대로 환산해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등급에 따라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감점하는 방식으로 영어의 영향력을 크게 축소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대학의 2019학년도 정시 수능 영역별 반영 방법

대학	계열	국어	수학	탐구	영어
서울대	공동	100	120	80	사실상 등급별 감점
연세대	인문	200	200	100	
	자연	200	300	300	
고대	인문	200	200	160	
	자연	200	240	200	

※각 대학 입학처 발표자료

영어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나머지 과목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특히 문과 학생에게 수능 국어는 입시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이과와 달리 탐구영역의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지요.



어려워진 국어, 수학보다 1등급 인원 적어

수능 국어의 난도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의 수능 출제경향을 살펴 봅시다. 2017학년도 수능은 국어가 A·B형의 수준별 시험에서 통합형 시험으로 되돌아간 첫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서는 신유형 문제가 출제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독서(비문학) 영역의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기존에 1500자 내외였던 독서 지문의 길이가 2000~2200자 정도로 확 길어졌고, 지문의 내용 또한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여파 때문인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 수능 국어 응시자 55만1108명 가운데 모든 문제를 맞힌 만점자는 단 1277명(0.23%)이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비교적 쉬운 A형 2198명(0.8%)은 물론 어려웠던 B형 931명(0.3%)보다도 만점자 비율이 줄었습니다. 덩달아 표준점수 최고점도 크게 상승했지요.

게다가 최근 수능 국어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2013학년도 127점 △2014학년도 131점 △2015 학

년도 139점 △2016학년도 136점 △2017학 년도 139점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2014~2016년 B형 기준). 표준점수 최고점은 문제의 난도가 어려워질수록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했 을 때, 최근 수능 국 어는 어렵게 출제되며 변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어려워진 국어영역을 대비하는 학생들의 준비 자세는 어떠할 까요? 아래 표를 살펴봅시다.

II2 최근 5년간 수능 영역별 1등급 인원(명)

수능 학년도	국어	수학	영어
2017	2만2126	2만8829	2만4244
2016	2만7124	2만8582	2만6271
2015	2만5054	3만5164	2만6070
2014	2만6481	2만7768	2만5900
2013	3만0054	2만8473	2만5267

※1등급 인원은 국어·영어 A/B형, 수학 가/나형 통합 인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자료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국어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대비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3학년도 수능을 제외하고 최근 4년(2014~2017학년 도)간 수학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인원이 국어영역에서 1등급을 받은 인원보다 더 많았습니다. 심지어 2015, 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의 1등급 인원이 가장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어는 결코 만만하게 볼 과목이 아니라는 점과 국어 1등급 확보가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최근의 수능 국어 출제경향...

길어진 독서 지문과 신유형의 등장

이렇게 중요성이 높아진 국어를 어떤 방법으로 학습해야 할까요? 국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먼

저 최근 국어의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 국어는 크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5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화법과 작문, 문법은 각각 5문제씩, 독서와 문학은 각각 15 문제씩 총 45문제가 출제됩니다. 최근 수능에서는 5개의 파트 중 △독서 △문학 △문법 3가지 파트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독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 △문법에서는 세트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점 △문학에선 문학과 비문학이 융합된 제시문이 등장했다는 점이지요. 각각의 변화가 국어 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독서 파트의 변화입니다. 독서영역은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파트입니다.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수험생이 제시문에서 파악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기 때문이지요. 과거 수능에서는 지문 분량이 1500~1600자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800~2200자, 신유형은 2500자 정도 길이가 매우 길어졌습니다. 또한 한 지문에 보통 3, 4개의 문항이 출제되던 것이 최근에는 최대 6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지문의 길이가 늘고 풀어야 하는 문항도 많아지며 시험의 난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독해력' 향상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두 번째, 문학과 비문학이 결합된 융합 제시문의 등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능 문학 파트에서는 5개의 제시문이 출제되면 제시문과 같은 수인 5개의 문학 작품이 등장합니다. 반면 2017학년도 수능 국어에서는 3개의 제시문에 6개의 작품이 등장했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작품이 묶여 하나의 제시문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비문학은 많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독서 파트와 연관되는데, 문제 구성방식이 자유로워진 만큼 앞으로 수능에서 문학과 비문학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제시문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트로 출제되는 문법 문항의 등장입니다. 기존에 문법문항은 간단한 <보기>가 나오고 그에 따라 선택지를 고르는 문항이 출제 되거나, 보기 없이 문제만 출제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능 국어 에서는 특정 문법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담긴 제시문을 던져주고 이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즉, 제시문과 해당 제시문에 따르는 문항들이 출제되는 '세트형 문법 문제'가 출제된 것입니다. 이는 과거 독서 파트에서 '언어학'과 관련된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에서 문법 문제가 나오는 형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 5가지 학습 전략으로 완전 정복!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수능 국어.... 어려워진 수능 국어 영역을 꼭 잡기 위해서는 체계

적인 학습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학습 방법과 계획을 세워야만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성적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 5가지 국어 학습전략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문법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영역의 문제는 지문을 읽고 지문의 내용에 맞춰 정답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문법은 사전에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암기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다른 탐구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문법 노트'를 만들어 문법 개념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서 특정 개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해당 문법이 또 다른 문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정리해봅시다. 문법 개념은 정확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혼자 해결하기보다 학교 선생님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이해되지 않은 문장을 성급하게 읽고 넘기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제시문을 읽다가 특정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다음 문장을 읽곤 합니다. 이렇듯 글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으면 2개의 선택지 사이에서 답을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문제풀이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만나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분석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평소 문제를 풀다가 2개의 선택지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맞힌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당 문제의 오답풀이를 해보길 바랍니다. 자신의 문제풀이 과정을 떠올리며 해당 답안을 선택한 이유와 정답지에 기재된 답의 근거를 제시문에서 명확히 찾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오답풀이 과정을 통해 정답과 오답을 판별하는 기준을 세워둔다면 향후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독서 파트의 제시문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국어 영역에서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생이 제시문을 빨리 읽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서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속독이 아닌 '정독'입니다. 수험생들은 일반적으로 '한 제시문 당 5~7분 내외로 문제를 풀겠다'고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하지만 특정 제시문은 난도가 높아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문 별로 시간을 정해놓고 급하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화법과 작문 △독서 △문법 등 파트별로 시간을 분배해 좀 더 마음에 여유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EBS 연계교재에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에 등장하는 전 영역의 모든 문제들을 EBS 교재와 70% 수준으로 연계해 출제합니다. 국어의 경우 특히 문학 파트에서 어느 정도 연계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의 연계율을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EBS 교재에 등장한 작품을 수능에 출제하더라도 교재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발췌해 출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BS 연계교재에 등장하는 작품과 작가의 특징을 기계적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생소한 문학 작품을 접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모든 파트를 꾸준히 고르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독서 파트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국어 학습 시간을 독서 파트에 할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른 파트의 성적이 하락

한권으로 끝장내는 대입전략(뭘 알아야 대학가지!)

할 뿐만 아니라, 독서 파트에서도 성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독서 파트는 독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문학과 문법 등 다른 파트의 문제풀이 시간을 줄여야 생깁니다. 따라서 국어영역은 문법, 문학, 독서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까지도 전체를 매일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duWho
Education Consulting

[에듀후 입시진학컨설팅]



강남구 언주로 174길 30, 4층 에듀후

Tel. 02.547.0025

www.eduwho.co.kr

blog.naver.com/eduwho

카카오톡: 에듀후